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소고

김 흥 진(백석문화대학 교수)

- I. 서 론
- II. 거짓말의 정의와 유형
- III. 기독교인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청문회
- IV. 청문회의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고찰
- V. 결 론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unethical aspects of lies spoken during personnel hearings conducted in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 and suggests social and ethical alternative ways in Christianity to reach an advanced society.

Chapter 1 is for an introduction, and Chapter 2 analyzes general meanings of lies. A lie can be defined as an act of speaker that deceives intentionally a listener or an act of speaker that hides what a listener likes to know. A key factor constituting a lie is “an intention to hide a fact.” In the Bible, the Ninth Commandment deals with a lie. Exodus 20:16 states,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s.” This commandment includes legal implications. In a personnel hearing conducted in the General Assembly, a person questioned can have a chance to advocate or defense for himself and to excuse himself with respect to controversial issues. A feature of lies in the personnel hearing is self defensive.

Chapter 3 deals with types and features of lies. In terms of contents, there are lies about objective facts, things and circumstances while there are lies about inner feelings. In terms of intent, there are lies to avoid penalties, lies to achieve a goal and lies to protect himself from others. Additionally, there is a sickness of lie. The lies spoken in such a personnel hearing can be categorized as a lie to protect themselves. Mostly, they lie to maintain their status as honest and clean officials and to advocate for their innocents.

Chapter 4 deals with social and ethical alternatives in Christianity to avoid such lies in the personnel hearing. Lying is wrong because it is unethical and sinful. Reasons why such a lie in the personnel hearing is wrong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of truthfulness that is required by a natural person. Second, because of morality that is required by public officials. Third, because of honesty that is required by legal professionals. Thus, restoration of the Ninth Commandment is emphasized.

Chapter 5 emphasizes Christianity’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a society where lies are pervasive. Christian’s ethics, morality and truthfulness should be revived to prevent this kind of lie spoken in the personnel hearing.

Key Words: Personnel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lie, Ninth Commandment, public official

I. 서론

2009년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많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에 나온 많은 공직자 후보자들이 보인 태도는 많은 실망을 주었다. 한 후보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지명철회라는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명철회의 이유로 “국민 생각과 대통령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처신, 평판 같은 것은 일을 잘하면 불식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다. 후보자 지명 철회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고위 공직자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

물론 거짓말이 ‘청문회’와 연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로부터 10년 전 1999년 가을 대기업의 총수와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있었다. 이것을 ‘옷 로비 사건’ 또는 ‘거짓말 청문회’ 사건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청문회’와 ‘거짓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의 윤리의식 때문이다.

2009년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공직후보자들의 ‘거짓말’은 『논어論語』 「顔淵」에 나오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民無信不立)”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특히 공직자 후보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 ‘거짓말’에 대한 평가는 더 냉혹한 게 현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번 기회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신의 밑바탕에는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바로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의 덕을 세워

1)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사퇴’, 조선일보, 2009년 7월 16일자, 제A1면.

나가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왜 기독교인임 밝히는 공직자들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지 기독교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왜 거짓말을 하며, 어떤 때 거짓말을 하는지 있는 여러가지 종류와 특징을 들여다보면서 공직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궁금한 일을 살펴보는 각종 청문회에서 행해진 거짓말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선진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독교의 대 사회 윤리적 대안을 생각해보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II. 거짓말의 정의와 유형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거짓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거짓말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절대적인 정의를 얻고자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거짓말의 일반적인 의미

거짓말은 말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상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능동적으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거짓말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²⁾

일반적으로 사람사이에서 거짓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약한 동기가 대

2) Miller, G. R. & Seiff, J. B.(1993). *Deceptive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20.

부분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대화에서 말해줄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에게 전해야 하는데 건망증과 무지로 잘 못 전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듣는 자가 생각할 때 자신을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속이려는 의지가 있어야 거짓말이 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동기가 어떻든 사실 여부에 초점을 두고 거짓이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말하는 자의 동기와 의도가 어땠느냐에 따라 거짓말인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은 동기와 의지에 있어서 속이려고 했으면 거짓말이 된다. 이는 거짓말을 할지 안할지를 자신이 선택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된다.³⁾

2. 거짓말의 유형

거짓말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짓말의 유형을 보면 다음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객관적인 사실, 사물, 상황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물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판정하기 쉬운 거짓말이다. 둘째는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해서이다. 이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감정 노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않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하지 않는 다른 표현이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기도 한다.

3) 김경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3), 43~60.

거짓말의 동기를 중심으로 거짓말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증언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왜곡해서 거짓을 말한다. 범법자가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도 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궁극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거짓말이다. 궁극적인 결과가 어떤 이에게는 이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권세와 명예 그리고 특권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도 있다. 허풍이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자신의 실수와 무능력을 부정하는 것 등은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얻거나 관심을 얻거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의 평가를 중심으로 거짓말의 유형을 살펴보면 선의의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있다. 선의의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예의상 하게 되는 이타적인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고, 타인을 배려해서 하는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나쁜 거짓말은 거짓말의 결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자기만의 실속을 차리기 위한 것이다.

거짓말의 구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 거짓말에는 자신이 사실을 모르고 하는 무의식적인 거짓말과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서 하는 의식적인 거짓말로 구분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거짓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잘 모르고 악의가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결과적으로 판단할 때에 거짓이 되는 경우이다. 의도적이지 않는 거짓말이 이에 해당된다. 의식적인 거짓말은 사전에 계획하는 계획적인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이든, 악의의 거짓이든 거짓말을 하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고 하는 의식적인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사람의 발달 상태에 따라 유아 어린이가 하는 거짓말과 청년 성인이 하는 거짓말로 구분할 수 있다. 유아는 상상과 현실의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에 의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이나 성인의 거짓말은 그 동기가 복잡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도덕적인 평가는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명예심이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망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을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병적인 거짓말이 있다. 병적인 거짓말로는 병적 히스테리 기질이 있는 사람이나 비행자(非行者)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거짓말, 병적인 기억에 의하여 제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화증(作話症)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포드(Ford, 1996)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거짓말로 첫째는 성적 만족을 위한 거짓말, 둘째는 직장에서의 거짓말, 셋째는 광고의 거짓말, 넷째는 정치가들의 거짓말, 다섯째는 의사와 환자간의 거짓말, 여섯째는 과학자들의 거짓말 등 이상 여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이 거짓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성적 거짓말이다. 연구결과 애인이나 거짓말을 해본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냈다.⁴⁾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정치가 일 것이다. 정치가가 다른 일반직업보다 거짓말을 더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사실 그런 것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장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⁵⁾ 의외로 정치가들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4) D. Knox, C. Schacht, J. Holt, & J. Turnet, (1993) <Sexual L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27, 269~272

5) 조은경,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02, Vol.21, No. 2, 38.

III. 기독교인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청문회

1.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십계명 중 제2계명과 제9계명을 중심으로

티끌만한 거짓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자 하는 이들의 최고의 이념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살다보면 이런 물음에 직면하게 될 때 똑 부러지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동의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거짓’ 혹은 ‘거짓말’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보여 왔을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가운데 그 첫 번째의 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실낙원과 관련이 있다. 선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유혹자와 이야기하다가 인류는 속아 넘어가게 된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아무튼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나? 왜 진실을 말해야 하나?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는가? 이런 물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과 제9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맹세’, ‘거짓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성경의 여러 거짓말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법적인 용어로 쓰인 십계명에서 제9계명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거짓말은 제2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제나 ‘거짓 맹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 가운데 ‘거짓 맹세’는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거짓 맹세는 인간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의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복음서 특히 마 5: 33 절~36절에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공직후보자 등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한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맹세는 단순히 국가 기관,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에 거짓증언의 심각성이 있다.

십계명 중 제9계명에서는 거짓말 다시 말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제9계명은 거짓말로 인하여 개인 및 공동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9계명은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거짓증거를 한다’는 표현과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합쳐져서 법정에서 증언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⁷⁾ 제9계명은 법정에서 거짓증거로서 억울하게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거짓증거로 이웃이 억울함을 당해서도 안 되며 거짓으로 자기를 변호해서도 안 된다. 제9계명은 누구든지 거짓증언을 하지도 당하지도 말아야 하며 억울하게 정죄의 위협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⁸⁾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법적인 거짓말이다. 자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위증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9계명을 어긴 것이다. 제9계명의 거짓말 금지 조항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고 법적인

6) 루터는 「십계명 강해」 가운데 제2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불성실하거나 범죄가 되는 일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주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언급하지 말 것과 마음으로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이름을 입술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8계명(9계명)을 설명하면서 ‘거짓 증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 사무엘하 1:16, 신명기 19:18.

8) B. S. Child, *Exodus*, in :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1974.

효력을 나타내었다. 제9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규율이며, 재판장을 위한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교훈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⁹⁾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을 연다. 그때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게 된다. 재판은 제사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연유된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기독교강요”에서 “이 계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실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도와서 그의 명예와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⁰⁾

그러므로 제9계명의 중요성은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정제도의 운영을 보전한다는 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생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9계명이 단지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져야 할 계명이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법적인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제9계명은 법적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있어야 할 계명으로 여겼다.¹¹⁾

9) B. Holwerda, *De dingen die ons van God geschonken zijn* IV. Goes, 1953, 54

10)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기독교 강요: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생명의 말씀사, 2009), 21. 또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7~78문에서도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정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때에 진실함과 또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진실치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여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청문회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인사 청문회에 나와서 한 거짓말의 유형은 타인을 속이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 청문회의 거짓말은 자신의 입장과 처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거짓말의 성격이 강하다. 자신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옹호를 위한 거짓말이다. 1차적인 거짓말의 목표는 자신의 추락을 막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위치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인정받아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도적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계획된다. 인사청문회를 받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그 때부터는 의도성이 있게 되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청문회에 나온 공직후보자들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의혹이 불거진 후에는 의도성이 개입되고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선택한다. 처음의 주장과 후에 밝혀진 주장이 다를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위해 사건을 은폐 혹은 사실목인 함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했으나 그 일관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서 거짓말이 된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첫째는 거짓말 자체를 부정한다. 거짓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을 부정하는 자세다. 둘째는 책임회피와 전가이다. 비록 속임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완전히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거짓말에 대한 인정을 하며

11) J. J. Stamm, *The Ten Commandment in Recent Research*, tr. by M. E. Andrew, London, 1967, 109.

책임은 지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까지 받아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짓말이 허용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다.¹²⁾

청문회에서 하는 거짓말의 정체는 무엇인가?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청문회를 당하는 자는 진실을 말함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그에 따라 부인하기도 하고 아닌 것을 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안다.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즉 진실하게 행동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을 말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거짓말을 할것인지 아닌지의 동기는 초래된 결과가 클수록 거짓말을 하려는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¹³⁾

청문회에 나와서 이익과 불이익을 저울질 하면서, 어떤 경우는 능동적인 속임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어떤 경우는 입만 다물고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때 말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 위험한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한 아이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의 가장 큰 의미는 진실을 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거짓말을 하기도 진

12) Sissela Bok, *Lying :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New York : Pantheon Books, 1978), 74~76

13) 조은경,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Vol. 21, No. 2, 2002, 35.

실을 말하기도 하는데 있다 하겠다. 그래서 거짓말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의 거짓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기 보호적인 거짓말이 특징이다. 모든 사람은 상황판단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말을 전개한다. 이때는 기만이나 속임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본능적이기도 하며 의도적인 행위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보다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¹⁴⁾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에 관련된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보호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9년 인사청문회는 유독 ‘거짓말’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다. 공직자 후보자의 거짓말은 자신의 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도덕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부인한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도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며 자신의 도덕적 위신을 세우기 위한 거짓말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자기변호를 했는데 거짓으로 변호를 했기에 거짓말이 된 것이다.

IV. 청문회의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고찰

거짓말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의 척도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직자의 거짓말은 왜 나쁜 것인가? 이 물음을 기독교 사회

14) 송재범, 「기만과 거짓말에 대한 윤리학적 소고」,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42호, 3, 1999. 10, 488.

윤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짓말과 사회 건전성

거짓말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든 또는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이건 간에,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의 의지 행위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말 또는 행동에서 정직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려고 결심할 수 있지만, 그의 결정은 사물의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규범에 의한 것이다.¹⁵⁾

본격적으로 철학과 신학에서 ‘거짓말’에 대해 정의하고 다룬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그는 395년에 『거짓말에 관하여(De mendacio)』¹⁶⁾라는 저술을 남겼다. 또한 20년 후에는 『거짓말에 반대하여(Contra mendacium)』(420)라는 책을 썼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을 윤리학의 커다란 문제라고 규정하고 처음으로 ‘거짓말이란 의지를 가지고 그릇된 것을 말하는 진술(Mendacium est enuntiatio cum voluntate falsum enuntiandi)이라고 정의했다.¹⁷⁾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거짓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도적인 그릇된 진술인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태 자체의 참됨 또는 그릇됨을 기준으로 하는

15) 마리아 베테티니 저, 장충섭 역, 『거짓말에 관한 작은 역사』(가람기획, 2006), 26~31.

16)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에 관하여(De mendacio)』 2부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누군가를 종교적으로 개심시키기 위해 ② 순전히 악을 행하기 위해서 ③ 속이는 일을 즐기기 위해서 ④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주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⑥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⑦ 생명을 구하기 위해 ⑧ 누군가에게 음란한 모욕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17) Aurelius Augustinus, *De mendacio*, Kap, IV, in : Aurelius Augustinus, *Die Lüge und Gegen die Lüge*, übertragen und erläutert von Paul Keseling, Würzburg 1953.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적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누구라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설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인 선을 얻기 위한 거짓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악의 공범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악을 견디라고 충고한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명한 처신과 침묵으로 거짓말을 피하라고 충고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을 해도 된다거나 거짓말을 증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논거를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거짓말은 말의 참 또는 거짓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거짓말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한다.¹⁹⁾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신학대전』 제2편 제2부 110문에서 거짓말의 부당성과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말은 본성상 알아듣는 표식들로서, 만인 누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부당한 일이다’²⁰⁾라고 하면서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실이 위배되는 표현에 비윤리성이 있는 것’²¹⁾이라고 했다.

칸트는 거짓말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그는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칸트는

18) Aurelius Augustinus, *De mendacio*, Kap, IV, in : Aurelius Augustinus, *Die Lüge und Gegen die Lüge*, übertragen und erläutert von Paul Keseling, Würzburg 1953, 3.

19) 같은 책, 42.

20) Thomas Aquinas, *Summa Theology* II-II, Q 110, a3 Resp.

21) Thomas Aquinas, *Summa Theology* II-II, Q 110, a 1.

거짓말이 보편화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 한다. 설령 거짓말이 나와 내 친구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도 준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거짓말은 비열한 것이며 인간을 행복할 자격이 없게 만든다.²²⁾ 그는 거짓말이 윤리학의 문제이며 동시에 형이상학의 성립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거짓말을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죄악으로 정의한다.

성경에서는 세계 안으로 악이 들어오게 한 최초의 범죄는 가인의 형제살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거짓말로부터 생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모든 악의 창시자를 거짓말쟁이로 거짓말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될 가치가 있다.²³⁾

거짓말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라고 지적한다. 그는 ‘사람의 말은 서로 속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의 진정성을 강조했다.²⁴⁾ 사람들은 언어로 의사를 소통한다.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로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거짓말은 이러한 전제를 뒤흔들어 사회의 안정성 또는 건전성에도 전한다고 볼 수 있다.

22)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622(in : Immanuel Kant Werkausgabe, VIII, herausg. W. Weischedel, Suhrkamp, Frankfurt, 1982).

23) I. Kant, 앞의 책, 564.

24) Aurelius Augustinus, *Enchiridion* 22, PL 40. 243: “Utique verba propterea sunt instituta, non per quae se homines invicem fallant, sed per quae in alterius quisque notitiam cogitationes suas proferat(vel proferat).”

2. 청문회의 거짓말과 기독교적 윤리성 회복

우리는 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거짓말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며, 그들은 공공연히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 여론을 형성해온 인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사회의 파워 엘리트를 형성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교회에 거짓말을 하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깊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꿔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보니 사회가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각종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짓말로 야기된 한국사회의 도덕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라인홀드 니버가 정의했듯이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성과 함께 자기초월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할 때, 공직후보자조차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등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화도 연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이익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회윤리학에서는 힘의 책임적 사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힘을 책임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우어와스가 주목하는 것처럼 교회가 현실세계에 사회윤리를 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교회가 곧 사회윤리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스스로가 사회윤리의 이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한국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교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간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속해있는 전통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 도덕성의 구현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실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기억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목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후보자로 나서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야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무연고적 자아가 아닌 성서적 자아, 공동체적 자아라는 점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어떤 규범과 행위 지침을 준수할 것인가?”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 양립가능하다고 답을 내놓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사 청문회는 공직자를 세우는데 결격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우는 과정이다. 각종 청문회에 나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한다면 적어도 거짓말과 관련된 시비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도 최소한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최근 있었던 인사청문회의 거짓말에 대해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대 사회 윤리적 책임감과 대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청문회의 거짓말은 우리 사회에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도덕성과 윤리성에 문제가 된다. 인사 청문회에서 거짓말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여 권력과 지위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보호하고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자연인의 비윤리성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되었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거짓말로 자신의 직위를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했지만 거짓말로 자신의 직위를 잃었다.

이런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표방하는 공직자들은 사회 윤리적 책임은 더욱 크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인구의 20%를 점하고 있는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해 거짓 없는 사회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굳이 동양의 고전에서 공직자의 윤리 또는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信)’ 있어야 한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의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계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와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희, 『이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43~60.
- 마리아 베테티니 저, 장충섭 역, 『거짓말에 관한 작은 역사』(가람기획, 2006).
- 송재범, 『기만과 거짓말에 대한 윤리학적 소고』,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42호, 1999. 10, 479~488.
- 조은경,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 21, No. 2, 2002, 33~65.
- John Calvin 저, 문병호 역,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기독교 강요: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생명의 말씀사, 2009.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y*. II-II. Q 110.
- Augustinus, Aurelius. *De mendacio. Kap. IV. in : Aurelius Augustinus. Die Lüge und Gegen die Lüge*. übertragen und erläutert von Paul Keseling. Würzburg, 1953.
- Augustinus, Aurelius. *Enchiridion* 22. PL 40. 243: “Utique verba propterea sunt instituta, non per quae sehomines invicem fallant, sed per quae in alterius quisque notitiam cogitationes suas perferat(vel proferat).”
- Bok, Sissela. *Lying :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 Pantheon Books, 1978.
- Child, B. S. *Exodus*, in :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1974.
- Holwerda, B. *De dingen die ons van God geschonken zijn* IV. Goes, 1953.
- Kant, I. *Metaphysik der Sitten*, 622(in : Immanuel Kant Werkausgabe, VIII, heraus. W. Weischedel, Suhrkamp, Frankfurt, 1982).
- Knox, D. Schacht, C. Holt, J. & Turnet, J. Sexual L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1993. 27. 269~272
- Miller, G. R. & Seiff, J. B. *Deceptive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1993, 20.
- Stamm, J. J. *The Ten Commandment in Recent Research*. tr. by M. E.

Andrew, London, 1967, 109.

논문투고일 : 2009. 10. 09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2. 05

• 국 문 초 록 •

본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해진 거짓말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독교의 대 사회 윤리적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1장에서는 서론을 말했고, 2장에서는 거짓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연구했다. 거짓말은 말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상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거짓말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9계명에서 말한다. 출애굽기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의 의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다. 인사청문회의 거짓말의 특징은 자기 보호적인 거짓말이 특징이다.

3장에서는 거짓말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 사물, 상황에 대한 거짓말과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거짓말이 있다. 동기를 중심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과 궁극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거짓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의 특징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자신이 청결하고 결백하며 공직자로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말이다.

4장에서는 청문회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대안을 고찰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은 비윤리성과 죄악성이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자연인에게 요청되는 진실성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도덕성 때문이다. 셋째, 법조인에게 요청되는 청렴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대안으로서 9계명의 회복을 강조했다.

5장 결론에서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 기독교의 대 사회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 진실성, 기독교적 윤리성, 기독교적 도덕성의 회복이 더욱 요청된다.

주제어 : 국회인사청문회, 거짓말, 9계명, 정직성, 공직자
